

사회진화론,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사회적
진화론 13
(Social
Evolutionism)

그동안 1년 여에 걸쳐 사회진화론(Social Evolution)에 대하여 연재하였다. 사회진화론이란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개인과 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말한다. 지난 글들을 통해서 거짓 역사인 진화론이 단지 과학책을 넘어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기본적인 삶의 기준이 성경이었고 유럽보다 진화론을 나중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진화론 교육 전후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미국은 1960년에서야 학교에서 진화론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1963년에 공립학교 기도 금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 성적타락, 이혼율의 급증, 낙태의 발생과 증가, 학원 총기사건 증가 등의 사회 변화의 격동기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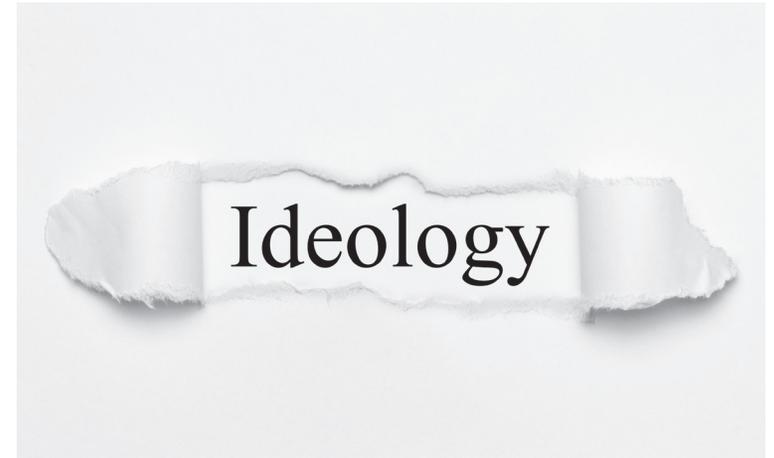
진화론의 보급 이후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성문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윈과 그의 이론을 따르는 자들은 성선택을 가장 중요한 진화 과정 가운데 하나로 꼽았으며, 이는 성개방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억제되었던 혼전 성관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미혼자녀의 증가와 낙태의 발생과 증가로 이어졌다. 아울러 결혼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음이 훼손되어 결국 이혼을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결혼보다 동거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읽은 후 기존에 가졌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이 이상적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수십 년의 어려운 삶을 겪었으며,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59년 출판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이어서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 지질시대표가 만들어지자(1872년) 사람들에게 진화론적 사고는 점점 견고하게 자리잡아갔다. 그 결과 유럽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 2 차 세계대전과 이데올로기의 몸살을 앓았던 모습을 다루었다. 경쟁과 살상은 삶의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당연한 과정을 넘어 이를 사회와 국가 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나치 독일은 철저하게 진화론으로 무장된 단체가 되었다. 나치당의 리더인 히틀러는 그의 책에서 다윈이 언급한 생존경쟁(survival competition)을 투쟁(fight)이라는 더 급진적인 단어로 바꾸었다. 진화론적 사고를 선동으로 증폭시킨 것이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는 모두 진화론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임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사고들이다. 그리고 20세기 중엽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6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엄청난 결과를 남겨놓았다.

20세기 들어 또 하나의 문제로 몸살을 앓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공산주의 사고를 정립한 칼 마르크스는 <종의 기원> 초판이 나온 다음 해인 1960년에 이 책을 읽은 후 기존에 가졌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이 이상적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수십 년의 어려운 삶을 겪었으며,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레닌이나 스탈린은 모두 신앙을 가졌던 자들



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며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수용했다. 그리고 이들의 독재 하에 수천만의 러시아인들이 사망했다. 아시아의 공산주의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집권 당시 수천만의 국민이 사망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한 독재자 정권 하에 가장 많은 사망자로 기록된다. 또한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은 당시 인구의 2/7인 200만을 죽이는 '킬링필드'를 남겼다. 베트남과 북한도 이와 비슷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단지 공산주의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진보적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은 자신의 성실성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고가 상대 기업을 죽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카네기는 크리스천이었으나 종의 기원을 읽고, 사회진화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펜서의 책을 접한 후 자유 방임으로 돌아섰다. 록펠러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그대로 믿는 소위 유신론적 진화론자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만 20세기 초에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위의 내용은 지난 한 해 동안 연재했던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진화론은 단지 과학책에만 그릇된 사고를 준 것뿐 아니라, 이 그릇된 내용은 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적용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sin)를 본성(nature)이라고 정당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전환을 진



보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정당화'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각 나라와 사회에 성적문란, 낙태, 이혼, 폭력, 경쟁, 전쟁 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죄가 들어온 이래로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화론이 '과학', '법칙', '역사', '사실' 등의 수식어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화된 것이다.

또한 이런 자세는 곧 바로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다. 성경과 상반된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성경의 무오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기존의 성경적 사고가 보편화된 서구 사회에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여러 신학자들은 성경과 진화론을 섞어서 믿으려는 신학을 만들었으며,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성경 역사를 바꾸려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신학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부정함으로써 사회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무엇이 죄인지, 결혼, 생

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배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걸잡을 수 없게 되었다. 진리에서 멀어져버렸다.

20세기 중반부터 각 국가와 사회는 각성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스스로도 20세기 초의 끔찍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각성'은 인위적이고 행위적인 노력일 뿐이다.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교과서에서 생존 경쟁에 의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배우고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화라고 하는 실체(reality)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잠시 덮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기독교는 각성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각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실 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진화과정에 들어있는 경쟁, 살생, 성선택 등을 이용하신 분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끔찍한 과정을 인정할 분의 형상이 되는 것이며, 이런 죄악 된 삶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갈 1:8, 9). 그런 면에서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있는 진화론과 성경을 함께 믿자고 하는 타협이론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다. 사회진화론을 다루며 독자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www.His Ark.com / hisark@gmail.com



창조과학탐사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창조과학탐사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인도자가 총출동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고 해답을 얻는 기회로 삼는 것이 기쁨입니다. 인도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뉴욕인투교회 지난 6월 10-15일 뉴욕인투교회(담임목사 심상현)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주로 청년들로 구성된 인투교회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젊은이인 만큼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진화론으로 가득 찼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세미나가 추가되어 이 시대를 더욱 분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합동신학원 지난 6월 17-21일 합동신학원(총장 정창균)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신학생인 만큼 과학적 질문과 함께 성경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의 등장 이후에 신학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자유주의와 실존주의적 신학이 등장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즉 교회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합동신학원 교수진은 지난 12월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을 발표하여 타협이론으로 어지러운 교계에 중요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지난 6월 18-21일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한일철)에서 Bill Hoesch가 인도하는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첫날부터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저녁 강의까지 진지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다음날 그랜드캐니언에서 직접 창조 때의 땅과 심판 때의 땅을 눈으로 확인했고 단 한번의 격변으로 형성된 그랜드캐니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진 저녁강의에

서는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강의에도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의를 끝나고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점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의문에 대해 묻고 답을 들으며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 중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었지만 더운 날씨와 긴 이동시간에도 지친 기색없이 성숙한 태도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인투교회



합동신학원

새로운 교회 지난 6월 24일-7월 1일 새로운교회(담임목사 한홍)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8일간 서부 창탐의 풀 코스로 진행되었는데,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으로 인한 타협이론에 관심이 높았는데,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확실히 교회 안에서 이런 그릇된 자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로운교회는 앞으로 창조과학을 교회 사역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나누었습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지난 7월3일-6일, 3박4일동안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남가주사랑의교회 교인 44명이 김낙경 박사가 인도하는 모하비사막,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을 거치는 탐사에 참여합니다. 전교인에게 광고하여 모인 그룹이라 김정훈 부목사님과 60대 이상의 장년, 중년층, 그리고 30-40대의 가족들과 어린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라 여러 차례 다녀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창조과학과 노아홍수의 사실들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간증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산갈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마커스 라이브 워십3집)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라 여러 차례 다녀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창조과학과 노아홍수의 사실들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간증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산갈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마커스 라이브 워십3집)

세미나

이재만 회장은 지난 6월 8일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진화론으로 인한 교회 안팎의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새로운교회



11기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11기 ITCM은 2019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2월9일까지 7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 (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또한, 성경공부와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론을 배웁니다. 이런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이 전하는 기원 역사와 복음에 대해 선한 증거를 얻게 되며, 창조과학을 도구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과 실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 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3.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4. 추천서 1부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앙고백과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 주십시오.
-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10명 이하로 선발합니다. ITCM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내실 곳 : 이현지 간사: hisark@hisark.onmicrosoft.com.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우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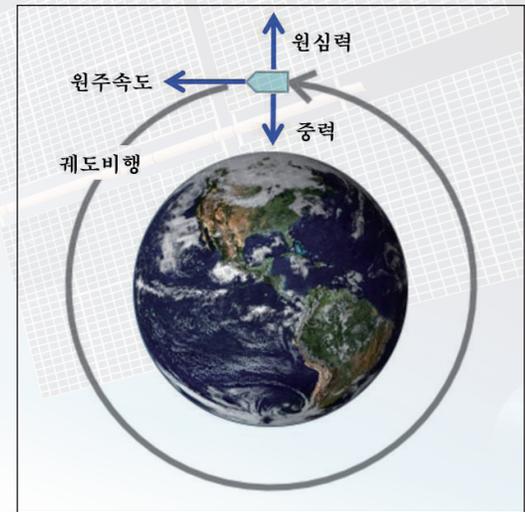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다이내믹한 세계인지를 가장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선을 통해서이다. 지난 반세기, 대형 로켓 엔진이 개발되면서 국가 기술의 상징으로 우주탐사는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동안 국가 간 경쟁으로 지금까지 쏘아 올린 우주선은 첩보용, 통신용, 기상용 등 수없이 많다.

이 순간에도 이들은 잠시도 쉬 없이 지구 궤도를 날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공중에서 정지시킬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우주선도 우주 공간에 잠시도 멈춰 세울 수가 없다. 이 우주선들은 모두가 운동법칙에 따라서 정확히 비행한다. 이들 어느 것도 저절로 이뤄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물론 수명이 다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대기권으로 추락하면서 타버리고 남은 잔재가 지표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예외 없이 모두가 운동 법칙에 따라 주어진 운동을 한다.

일단 지상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일정한 높이로 올라가 목표한 궤도에 진입하면 그 궤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우주선은 지구 중력으로 아래쪽에서 당기는 힘과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동일하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우주선의 중력과 원심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며 원주 방향으로 달리는 속도를 '임계속도'라고 한다. 이 속도 보다 우주선이 느려지면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더 빨라지면 먼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만일 대기의 저항이나 외부의 간섭이 없다면 우주선은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동일한 궤도를 항구적으로 돌게 된다. 마치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계속 공전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우주정거장(ISS) 우주선은 지구 상공 약 350Km 궤도를 비행한다. 이 우주선이 동일한 고도를 유지하며 궤도를 선화하데 필요한 원주속도가 초속 약 8Km이다. 이 속도로 이 우주정거장은 매 90분 마다 지구를 돌고 있다. 하지만 이 고도에는 희박하지만 어느 정도 대기가 있어서 저항과 마찰을 받게 되고 때문에 고도가 달라져서 가끔 추진 엔진을 켜서 궤도를 보정해줘야 한다. 물론 공기 저항이 없다면 우주정거장은 영구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 것이다.



중력과 원심력의 균형

인공위성 중에는 지구의 상공에 고정된 위치를 유지하는 소위 정지위성들이 있다. 이들은 지구의 적도 상공 3만 6천 Km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원주속도로 조율되어 돌기 때문에 지구 상에서 볼 때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정지위성들도 초속 3Km 속도로 24시간 주기로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공 우주선들은 태양계 행성들처럼 모두 우주 공간에 주어진 속도로 일정한 궤도를 달리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주선은 총알 보다 빠르게 달려서 하루에도 지구를 16번이나 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하며 일과를 보낸다. 물론 우주선 안에서 중력과 원심력의 균형으로 무중력을 경험한다. 따라서 지상에서처럼 체중이나 물건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물체라도 말이다. 때문에 이들은 우주선 안에서 걷지 않고 날아 다닐 수 있다. 또 위와 아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눕고 서고 일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지구에서의 일상과 같이 지낸다. 이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만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주정거장 우주선에는 최대 6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들은 주어진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낸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그날의 일정을 점검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식사, 저녁식사 그리고 샤워를 하고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9시 취침한다. 마치 지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낸다. 이들은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우주선에서 살다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우주정거장 우주선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지상에서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이다. 그 주기가 시계로 24시간이고 그래서 지상에서 하루는 24시간이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약 38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돈다. 달이 지구를 선회하는 주기가 29.5일로 한 달에 대한 정의이다. 그렇다면 우주정거장의 주기는 90분인데 이 주기를 우주선의 하루로 해야 할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Morning), 저녁(Evening), 낮(day time)과 밤(night), 하루(day) 그리고 계절(seasons)과 일년(year) 등 시간에 대한 모든 기원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모두 오직 성경에서 그 기원의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day)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night)이라 부르시니라. 저녁(evening)이 되고 아침(morning)이 되니 이는 첫째 날(day)이니라 (창1:4b-5),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day)과 밤(night)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seasons)과 날(day)과 해(year)를 이루게 하라” (창1:14)

오늘날 통신위성을 통하여 지구상 어디서나 무선 통화가 가능해졌다. 또 GPS 위성으로 위치도 추적이 가능하고 항공기 운항이나 자동차 운전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편해졌나! 기상위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일기 예보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우주 탐사를 통하여 수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주탐사로 확인된 한가지 사실은 우주가 매우 다이내믹 하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이내믹한 체제는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정확히 표현된다. 따라서 이는 필연의 결과다. 다이내믹에 관한한 저절로나 스스로와 같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인위적인 입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다루게 될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과 그 행성들도 우주선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질서로 주어진 속도로 정해진 궤도를 제각기 달리고 있다. 그러면 태양을 비롯해서 그 행성들과 위성들의 궤도와 속도 그리고 방향을 누가 결정해 주었다는 말인가? 이는 우주가 스스로 폭발하여 저절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빅뱅(대폭발) 이론이 얼마나 실제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를 반증해 준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을 받았음이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시148:3-6)



이동용 박사
항공우주공학



이 기사는 지난 3월13일, 한동대학교 창조와진화 강의 시간에 진행 된 이재만 선교사님의 '지구의 나이' 특강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문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빼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특강을 통해 성경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된 것 같아 매우 감사했다. 앞으로 창조와 진화 시간을 통해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다짐했다.

진화론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알고 있지 않은 저는 항상 진화론에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지 난감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하여 진화론의 그릇된 증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창조론의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대해 굳은 믿음이 생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또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질시대표가 진화론의 일부인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진화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탄소가 남아있는 50,000년이 되지 않은 화석을 이전 시대의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게 진화론을 알고 있었는지 깨닫고, 성경의 맞는 부분을 알게 될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특히 진화론을 사람의 일생을 찰나로 보며 먼지와 티끌같이 여김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먼지로 보지 않으심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고 나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진화론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증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교회에서 듣고 성경에서 본 창조론은 너무 다른데 성경은 틀림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틀린 것인가? 그런데 창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제 생각이 유신론적 진화론이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화론이 생겨난 이유가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공감되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의 증거들이 모두 자신의 편견에 따라서 취사선택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



었고 그렇게 과학적 증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나름 진화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구석기, 신석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렸던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고 처음이 좋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 드린다. 또한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나의 편견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의 역사는 성경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묵상하고,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겠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증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고 직접 보았던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시고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임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바꿔 생각한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화론이 확실치 않은 증거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옳지 않은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떠나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9 ACT Schedule

7/28-8/1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8/5-10	창조과학탐사 (서산제일감리교회), 이재만
8/11-15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8/19-22	창조과학탐사 (국제총회선교사훈련), 이재만
8/24-30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이재만
8/31-9/2	창조과학탐사 (Yosemite Creation Tour: Jolie), Bill Hoesch
9/2-10	창조과학탐사 (온누리교회여성예배), 이재만
9/11-16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실버미션), 이재만
9/17-20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9/21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9/27-29	창조과학세미나 (산호세이미마누엘장로교회), 이재만
10/3-10	창조과학탐사 (홀드), 이재만
10/14-18	창조과학탐사 (뉴저지필그림선교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